

문화재 소식

인각사지 복원 추진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지표조사 창건당시 사역 확인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고 입적한 경북 군위 인각사(사적 제374호)가 복원된다. 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단장 해자·문화부장)은 인각사 종합정비 및 복원사업의 첫 단계로 9월부터 정밀지표조사에 들어간다고 8월30일 밝혔다. 내년 6월까지 실시될 이번 조사에서는 <동문선> 등 옛 문헌을 바탕으로 창건 당시의 정확한 사역을 확인하고, 주변지역 불교유적 조사를 통해 인각사의 역사적 성격, 기로로만 남아있는 일연 스님의 행적 등을 밝힐 계획이다. 또 향후 이를 토대로 전체 사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려, 조선시대 가람의 모습까지 밝혀내 종합적 복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상규 문화과장은 "이를 토대로 일연스님 기념관을 건립하고 역사탐방로를 설치하는 등 성역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jiny@buddhapia.com)

운흥사 괘불 국보 신청

경남 지방유형문화재 제61호인 운흥사 괘불은 운흥사 괘불탱과 산청군 울곡사 괘불탱(비지정)이 국보로 지정 신청된다. 경남도는 8월29일 도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이 두 괘불탱을 각각 국보로 승격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키로 결정했다. 1730년에 조성된 운흥사 괘불은 7.6m×11.3m 크기로 의경 스님 작품이다. 4.7m×8.3m 크기의 울곡사 괘불은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1684년 법림 스님이 그렸다. 도문화재위원회는 이들 괘불들이 조선 후기 대작불사에 의해 조성됐고, 이들과 비슷한 진주 청곡사 괘불이 지난 97년 국보로 지정됐음을 감안해 국보 지정을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포항서 고려석불 발견

포항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상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청하면 서정리 비로자나석불은 방형대좌 위에 조성된 좌상으로 규모나 제작기법에서 볼 때 고려시대 불상으로 추정된다. 포항 북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석불로 이 지역 불교미술사 분야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홍성빈)는 99년 10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포항시 북구 관내 7개 읍·면, 23개 동에 흩어져 있는 각종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 과정에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상 3기를 발견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절터 16곳, 탑 1기가 새로 발견됨에 따라 이 지역 불교유적은 모두 40건으로 늘어났다. 권형진 기자

“유식사상 정신치료에 활용하자”

김치은 박사, 보조사상연구 발표회서 주장

“수행법 과학적 데이터 축적”
“아뢰야식으로 심리현상 설명 가능”

중생의 마음을 심층 분석해 번뇌의 인과(因果)를 낱말이 설명하고 있는 유식사상 특히 '아뢰야식'을 과학적으로 다루고, 이를 정신의학과 심리학계에 수월하게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치은(동국대 강사·사진) 박사는 8월26일 보조사상연구원 월례발표회에서 '아뢰야식의 존재 증명에 대한 고찰'을 발표하고, "아뢰야식은 마음의 양상과 변화 과정을 다룬 유식사상의 키워드"라며 "아뢰야식의 실제와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불교를 정신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자들이 실증(實證)할 수만 있다면, 유식사상의 교학 체계는 물론 분석심리학의 이론·방법 등과 비교·연구해 정신치료 분야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이 박사는 주목했다. 이를 위해 김 박사는 "우선 '유식'에 대한 철저한 교학 연구를 토대로 관념에 머물기 쉬운 정신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려는 불교학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레아만 프로이드와 융이 보는 마음의 구조와 유식에서 보는 구조를 비교·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여래장과 무의식', '무심(無心)과 무의식' 등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 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신의학과와 심리학자들은 불교를 정신치료에 활용하면 적잖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은 채, 현장에서 명상과 같은 불교적인 방법을 수용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아뢰야식이란 '현상계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이라는 뜻으로, 유식사상에서는 분별과 판단의 주체로 본다. 따라서 관념적인 정의에 머물러 있는 아뢰야식을, 관련 불교학자들이 실증(實證)할 수만 있다면, 유식사상의 교학 체계는 물론 분석심리학의 이론·방법 등과 비교·연구해 정신치료 분야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는 데 이 박사는 주목했다. 이를 위해 김 박사는 "우선 '유식'에 대한 철저한 교학 연구를 토대로 관념에 머물기 쉬운 정신 현상을 명확히 설명하려는 불교학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그레아만 프로이드와 융이 보는 마음의 구조와 유식에서 보는 구조를 비교·연구할 수 있고, 나아가 '여래장과 무의식', '무심(無心)과 무의식' 등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어, 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박사는 "불교에서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수행법으로 다양한 임상 실험을 실시해,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명숙 씨는 "지금까지 정신을 치료한다는 관점에서 불교사상을 고찰한 연구들이 부족해, 현장에서 불교적 방법론을 찾기 못했다"며 "정신치료를 위해서는 마음의 병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여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하며, 마음을 다루는 유식사상은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국내에서 불교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 이동식, 강석현, 한기수, 윤호균, 문홍세, 신옥희, 정창용 등에 힘입어 지금까지 20여 편의 '불교와 정신치료' 주제의 논문이 나왔다. 그러나 정신의학과와 심리학자에 의해 주도된 탓에 불교를 접목시키는 안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조사상연구회 제32차 월례발표회에서 '아뢰야식의 존재 증명...'을 발표하는 김치은 박사. 이날 최종남·김성철 박사 등이 논평에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 성과 역시 개념과 정신의 변화를 비교하는 일차원적인 것에 머물러, 치료 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유식사상 특히 '아뢰야식'과 정신치료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 역시 찾아보기 힘들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정신상담 및 병리치료를 위한 방향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불교의 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중생구제에 적잖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불교학자들의 관심 여부에 따라 정신의학과나 심리학자들이 의료 현장에서 '마음 치료'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선종어록 연구 양과 질 부족”

송인성 박사 '백련불교 논집' 10집에 논문

선종 어록연구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논문이 나왔다. 화제의 논문은 송인성(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사진) 박사의 '선종 어록의 언어 연구 현황과 과제'. 성철선사상연구원이 10월 말경 발간하는 <백련불교논집> 제10집에 수록될 이 논문에서, 송 박사는 "한국불교는 선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학계의 선종 어록 연구 성과의 수준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선종 어록'과 관련된 한국의 연구 성과는 단행본 45권, 사전 1권 등으로, 양적으로 중국·일본의 성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성과 역시 원문을 소홀히 다루고, 해석 상 오류를 범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중적 관심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당집 주해 I>(동국대역경원)는 대만본(本)〈선장〉을 참고하면서 원문에 표점 대신 현토만을 사용해,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거리감만 주었다. 이 같은 경우는 '선림교 경중서'(백련선사간행회) 가운데 <임제록>〈조동록>〈운문록〉 등 37권의 선종 문헌도 마찬가지다. 또한 <선학사전>(불자사)의 경우, 관련 어록의 판본과 간행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정확성이 떨어지고, 예문에 대한 우 리말 번역이 없다. 또한 선종 어록에 자주 나타나는 어휘가 누락되어 있다. 선종 어록 관련 논문 역시 4권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따라 송 박사는 "지금까지의 선종 어록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정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선학 논저 색



인 △선학 대전 편찬 △선학 입문서 간행 △선학 관련 정기 강좌 개설 △선종어록 역주본 출간 △국내·외 교류 등의 '선학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송 박사는 "단독 연구만으로 진행되어 온 선학연구 풍토를 떨쳐버리고, 올 3·4월 결성된 '선어록 연구회(회장 중법)'와 '한국선학회(회장 현각)' 등에 적극 참여해 토론·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어록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일은 한국불교의 본 모습을 바라보는 작업인 만큼,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기대된다. 오종욱 기자

학술단신

백련학당 3기 수강생

성철선사상연구원은 제3기 백련학당 수강생을 모집한다.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화·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당에는 송인성 박사의 '선어록입문', 인환 스님의 '불교일본어 I', 사토모 시게키 교수의 '불교일본어 II' 등이 개설됐다. 접수는 16일까지. (02)744-1541

한국선학회 월례발표

한국선학회는 16일 오후 1시 30분 중앙승가대학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이철원 박사의 '사명당 유정의 선사상', 인경 스님의 '회입과 선의 관계-돈교 논쟁을 중심으로' 등이 발표되며, 김상영(중앙승가대)·황인규(동국대)·서정형(서울대) 박사와 계환 스님 등이 논평에 나선다. (02)2260-3135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불교평화교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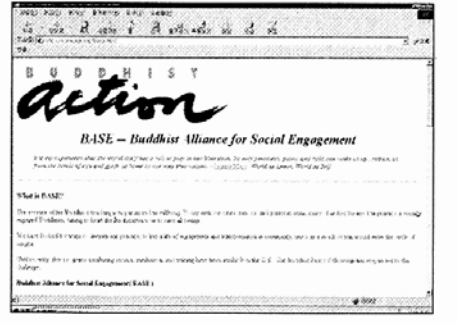
“열린 마음으로 참여불교 실천”
세계 각국 4천여 회원 활동

세계 평화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불교단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 곳이 불교평화교우회다. 이 단체는 1979년에 설립되었는데, 현재 세계 각국에서 4천 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종교적 파벌 의식을 탈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참여 불교를 실천하고 있다. 이 단체의 본부는 미국에 있지만, 인터넷을 이용한다면 '블리' 한 번으로 꿈꾸어 살고,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연혁 △사상 △프로그램 △게시판 △생태대학 에세이 등을 열람·이용할 수 있다. 먼저 교우회 활동을 조망하고 싶다면 '연혁' 메뉴를 이용해야 한다. 교우회는 국경을 초월해 20여 년간 방글라데시, 베트남, 티베트, 미국, 일본 등과 같이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서 불교의 평화 사상을 일깨우고, 제도화된 무지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일조했다.

1996년부터는 미국의 카이저 재단으로부터 5천 달러를 지원 받아 '이동 의료단'을 설치, 태국과 라오스 국경 인접 지역에 있는 아동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지역 아동 장애인들은 하나같이 땅속에 묻혀있던 '대인지뢰'의 폭발로 인한 것이다. 교우회에서 진행하는 독특한 불교 수행 프로그램인 '사회참여불교인동행'을 알고자 할 때는 '프로그램' 메뉴를 열람하면 된다. 교우회 자원 봉사자들의 수행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인권과 관련된 편지 쓰기 운동 △분쟁 지역에서 온 피난민과의 공동 생활 △철학기도와 시위 참여 △청빈한 생활 △유해한 상품과 정책에 대한 저항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지지와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메뉴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미국인 불자들의 수기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 미국인 불자는 "정의·평화·여성·환경운동과 같은 현안의 실마리를 푸는 데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하고 있다. '게시판' 서비스를 이용하면 교우회가 실천하고 있는 사회 개혁 운동에 시공을 초월해 참여할 수 있다. 한 번의 클릭 또는 불자 네티즌 자신의 e-메일을 등재하는 것으로도, 인류의 사회적 생태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에 동참한 셈이다.

또한 '생애 에세이' 메뉴에서는 "자연은 그 자체로 우리의 자유를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연의 고통과 위협 등은 우리를 일깨우고 또한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연은 우리를 본래의 본성으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여류 생태학자 조안나 메시의 '대지의 여신, 우리의 삶'과 같은 생태학자들의 글 5편을 열람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http://www.bpf.org



출판화계 만불명호경

萬佛名號經과 함께 하는 一萬拜
1만분의 부처님께 禮敬을 올리는 일입니다.

이제 절(拜)수행을 하는데 염주를 세며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일배일배 지극정성으로 부처님명호를 부르며 하는 절수행은 환희와 신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만불명호경』은 菩提流支 번역의 『佛說佛名經』을 비롯한 총 9冊 56卷의 佛說佛名經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일일이 대조 정리하여 신행생활에 유용하도록 새롭게 엮은 佛典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무심으로 올리는 절(拜)은 자신의 修行을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의 名號를 독송하며 올리는 절(拜)은 願力成就의 원동력입니다.

1만 분의 부처님 명호를 통해 수행과 원력의 성취를 체험하십시오. 만불명호경을 받아지니는 그 자체가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백일기도, 천일기도, 참회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의 행복발원기도, 건강발원기도... 그 소중한 원력들을 지닌 기도를 이제는 「만불명호경」과 함께 하십시오.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편집: 도서출판 佛泉
감수: 월운 큰스님(동국역경원장)
역은이: 초격 스님
보급처: 광명선원
☎ 02) 584-1108, 587-3753
016-217-0143
가 격: 35,000원

도서출판 佛泉 ※ 많은 불자들에게 보다 널리 보급하고자 전화나 우편주문으로 판매됩니다.

새천년, 미얀마에서 전해온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이야기!

아난 존자의 일기 1-4



원나 시리 지음, 범라 옮김
신국판/각권 306쪽/각권 8,000원

아난 존자가 일생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생생하고 감동적인 생애!

아난 존자는 출가 후 부처님이 일년에 드실 때까지 부처님을 시봉하던 제자이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의 행적을 가장 잘 알고, 부처님의 범문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부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였던 아난 존자가 전하는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철저히 경전의 기록에 근거한, 새로운 형식의 부처님 일대기와 그 가르침!

이 책은 방대한 빠알리 원전과 주석서, 소초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부처님의 승결과 수행방식이 아직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존의 부처님 일대기와는 다른 새로운 감동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 3672-7181-5